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2년 6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2022년 8월 7일

“자녀들아, 오늘 나는 8월 7일 이 성지의 별판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 모임 중에 ‘세 가지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어줄 것임을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해준다. 거룩한 성모는 그녀의 생일에 너희에게 말하겠지만 별판에서 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리아의 메시지는 다른 모든 대중을 위한 메시지들처럼 전파될 것이다. 8월 5일에는 별판에서의 (기도) 모임은 없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2년 7월 9일)

8월 6일 (토) 기도 모임 (온라인 생중계)

오후 3시 - 자비심의 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저녁 7시 - 기도 모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8월 7일 (일) 기도 모임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오후 2:30 - 행렬과 기도 모임, 약속된 발현과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 (저녁 7시 기도 모임이나 온라인 생중계 없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은 열려 있을 것이며, 기도 모임도 생중계 됩니다.)*

■ 2022년 6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련과 승리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아무것도 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지상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영원은 영원하다. 각 영혼은 지상에서의 짧은 인생 동안에 (내세에서의)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너희의 삶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지상 생활이 너희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너희의 영원한 존재를 위한 시험으로 보아야만 한다. 인내하며 각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내 눈에 공로를 쌓고 싶다면, 인내나 역경에 분노가 있을 수 없다. 역경 속에서 너희의 인내는 천국의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사다리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2-7)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심이나?”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 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 2022년 6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욱 거룩해지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라.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 때, 이 목표에 대해 너희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것이 한 번에 한 사람(마음)씩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세상의 마음이 좀 더 거룩해진다면, 나의 부성적 성심은 진정되고, 나의 노여움은 누그러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계획했던,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예 없었다면 내렸을 매우 엄중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정의(심판)는 완화될 것이다. 나의 정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나의 이 계획을 열정을 가지고 따라라.”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1-10)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

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2022년 6월 3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바쳐진 이 성월(6월) 동안 모든 선한 영감의 원천이신 너희 주님의 성심께 경의를 표하여라. 내 아들은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그리고 내 티 없는 성심을 통해 모든 은총을 베푸시며,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서 매 현 순간의 은총을 인류에게 전해준다. 현 순간의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는 너희 마음이 모든 선을 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성심은 언제나 함께 하며, 일치해 있다. 너희가 이 두 성심 중 하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의 기도는 나머지 하나에게도 알려진다.”

“우리의 성심 중 어느 한 곳에도 방치되어 있는 은총은 없다. 우리의 성심 중 하나를 공경하면서 의탁하는 너희의 필요는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는다. 너희가 집에서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해 놓으면, 우리는 너희를 축복하면서 우리 둘 다 그곳에 있다. 악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상본 앞에서 달아난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오리지널 ‘하나되신 성심’ 상본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 둘만 합쳐져 있는 하나되신 성심) 또는 이후에 나온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상본’ (성부 성심 (불꽃), 성령 (불꽃 안의 하얀 성심), 성자 성심 (가시관), 그리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장미와 칼), 이렇게 4개의 성심이 하나로 합쳐진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상본): <http://holylovekorean.com/xe/message/102111>

■ 2022년 6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자녀들아, 내가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이끌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보호 아래 모여라.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면, 너희는 각자 이런 방법으로 성화될 수 있다. 나는 성인이 되라고 너희를 부르기 위해 이 메시지들을 취하도록 너희에게 요청한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나는 성화로 가는 확실한 길을 따라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너희의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된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을 너희의 목표로 삼아라. 성화되라는 나의 부름에 너희가 의탁하는 매 현 순간마다 너희는 나의 승리의 일부다.”

+ 성경 구절 독서 (2 베드 3:11-13)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22년 6월 5일 - 성령 강림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의 영을 너희의 보호자, 변호자, 제공자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나의 영은 너희가 의심할 때 너희에게 말을 걸며, 너희가 두려워할 때 너희에게 다가간다. 또한 나의 영은 너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의 모든 필요에서 나의 영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계속해서 진리에 일치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사도 2:1-4)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2022년 6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서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하며 공경하면, 너희 가정은 진리에 봉헌된다. 진리는 성령의 축복을 통해 너희에게 다가오며, 성령은 하나된 성심을 높이 받드는 이라면서 누구든 그와 함께 한다.”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은 영혼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원의 길을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참된 신심은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참된 신심은 피상적이지 않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된 성심에 대한 사랑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내맡기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39:23-24)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 2022년 6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평화를 얻는 비결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희는 평화롭지 않다. 그때에 너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임을 너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너희의 기도가 가치 없고,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다고 너희를 설득하려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자는 온갖 외부적인 분심거리로 너희의 집중을 방해하여 너희의 기도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너희의 기도 노력에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은 사탄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먼저 너희의 기도의 힘과 그 필요성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를 에워싸고,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여왕이며 모후이자 너희 신앙의 수호자는* 기도 동반자로서 너희의 강력한 동지다. 마리아의 도움을 구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코린 4:8-10, 16-18)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

■ 2022년 6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현 순간의 선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각 현 순간 안에는 너희 구원에 필요한 은총이 있다. 현 순간 안에는 너희의 회심과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 똑같은 은총이 똑같은 방식으로 즉, 똑같은 상황이나 (너희의) 똑같은 마음가짐

에 다시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각 영혼은 현 순간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게 곧,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살아라. 이 안에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하느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모든 은총을 너희와 나누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다. 이는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고 고대하던 선물을 산 다음 그것을 줄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나는 나의 부성적 성심 안에 기쁨을 간직한 채 너희가 천국에 도착할 날을 기다린다.”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1:13-16)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거룩한 사랑이란’ 전단지:

<http://holylovekorean.com/xe/data/79238>

■ 2022년 6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 너희를 위한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 너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너희의 평화다. 십자가는 예수의 생애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십자가를 받아들임은 곧 너희의 평화이자 너희의 구원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다. 너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짐은 수월하고 가벼워질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22년 6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기초는 바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이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

에서 나온다. 너희가 더욱더 너희 자신에 대해 죽고 나를 사랑할수록, 너희는 더 거룩해진다. 나를 기쁘게 해 줄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라.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 죽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다. 나는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는 이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매 현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내기를 원하여라. 현 순간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2)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2022년 6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은총이다. 변화가 부정적일 것이라며 너희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대는 자는 바로 사탄이다. 변화 속에서 언제나 나의 뜻을 찾아내어라. 고집스럽게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어떤 변화든 변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녀라.”

“변화는 회개하라는 나의 부름의 일상의 일부이며, 거듭거듭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사탄이 나의 뜻이 아닌 것을 너희에게 제시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변화는 너희의 순간 순간의 회심의 한 부분이다. 회개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을 계속해서 너희 마음 한가운데에 두어라. 이것은 순간 순간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2년 6월 1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대중 매체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믿도록 대중을 조종하고 이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지도자들이 알래스카 송유관을 다시 개통한다면 기름값은 비싸지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범죄가 총기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대중은 외부 세력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대중 매체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뉴스 매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너희가 믿는 진리가 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일반 대중이 체계적이지 않고 진리가 침묵당하지 않는 한 악은 이 나라를 제압하지 못한다. 너희 나라가 세워졌던 그 기초인 헌법을* 믿어라. 자유 기업 체제는 조직적인 독점 체제에게 조종 당해서는 안된다. 소수의 범죄가 전면적인 정책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야. 결코 외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침묵당하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미국 헌법: <https://constitution.congress.gov/constitution/>

■ 2022년 6월 1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신자들(Remnant Faithful)’의 근간은 바로 진리다. 진리는 너희가 과거에 어떠했고, 미래에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준다. 거짓말하는 영은 현실을 왜곡시키려고 애쓰는 영이다. 그때에 행동의 결과가 잘못 해석되는 것이다.”

“너희가 지혜롭다면, 너희는 낙태법을 뒤집는 것을 지지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 자유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2년 6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 거룩함에 있어 그다지 많이 진보하지 못한 이들에게 조바심을 내지 마라.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라. 이것만으로도 좋은 교정이 된다. 그들이 더욱 깊은 거룩함을 갈망하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너희의 천사들을 사용하여라.”

“그들 주위의 모든 이들이 거룩함의 길을 걷는다면, 그들도 머지않아 그 길을 따를 것이다. 결국에는 선이 이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라. (보통 때에는) 좋은 자질이 숨겨져 있지만, 유사시에는 그것이 드러나는 이들도 있다.”

“이 선교회에 관해서 말하자면, 선교회는 언제나 똑같지만, 그럼에도 늘 변화한다. 선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선교사업의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 2022년 6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함을 너희의 우선 사항으로 삼아라. 거룩함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천국을 너희의 영원한 거주지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에게 남은 다른 대안을 보았다면, 너희는 매 현 순간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우성쳤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초대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더 해 줄 수 없다. 너희 스스로가 온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의 우선 사항들이다. 너희는 나와 나의 아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이 죄의 거미줄에 얽혀 있느냐? 너희는 반드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4:4)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6:11-14)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 2021년 6월 24일 - 7월 3일까지의 메시지 참조:
http://holyllovekorean.com/xe/index.php?mid=subject&document_srl=93159

■ 2022년 6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재림할 때, 거짓이나 가식적인 종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진리가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모든 마음이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 나를 창조주로 섬기며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의 마음을 통치할 것이다. 나의 아들은 구세주로서 인정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일체가 되어 예배할 것이다. 진리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세계 뉴스나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사탄의 거짓말들을 전달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영혼들이 그들의 구원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어버릴 그 시간이 꺼려지기도 한다. 모든 영혼들의 회심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할당하는 시간 곧, 현 순간을 잘 활용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22년 6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다른 이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삶 속의 십자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어서 매우 비판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크게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동정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과 비슷한 십자가들을 인내를 가지고 지고 가는 다른 이들에 대해 알려주어라. 참지 못함의 원인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다. 예수가 얼마나 큰 인내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기억하여라. 모든 역경에서 인내를 구하며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1:24-25)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 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과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 2022년 6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지나가버린다. 너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너희의 자격이다. 평판이나 신체적 외모, 부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뒤로 하고 대신 나를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천국에서 사는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천상의 도움을 구하여라. 이 천상적 목표를 중심으로 너희의 하루를 짜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너희 자신을 만족케 하기 위해 살지 마라. 이 목표는 너희를 땅에 묶어 놓기 때문이다. 자기 부정(self-abnegation)을 통해 너희의 정신을 들어올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겨라. 이것은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22년 6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개인적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의 여정에서 절대 만족하지 마라. 나를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아라. 나의 계명들을 너희의 여정의 규칙으로 삼아라.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뒤이어 그 길을 따르게 된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나의 남은 신자들을 형성할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을 보는 나의 극심한 괴로움을 한 번 상상해 보아라. 나의 기쁨은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한 너희의 통회와 회개하는 마음이다. 나의 믿음의 용사들은 세상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데 반드시 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나의 남은 신자들에 속하는 다른 모든 일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너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에 낙심하지 마라. 모든 나쁜 소식들을 기도를 더 하라는 격려의 표시로 받아들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 **2022년 6월 19일 - 아버지의 날 (미국).**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라. 이것은 그저 인내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다 일 수도 있다. 또,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십자가와 같은 역경을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에서 너희는 나의 것이며,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날에 너희의 모든 필요에 대한 나의 통치를 나와 함께 기념하자. 이것이 ‘신뢰하는 내맡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내가 현 순간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허락하면, 이것은 너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4-5)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 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

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2년 6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부성적인 권능을 깨닫고,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의존하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자애는 매 현 순간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나의 안배 안에 있다. 재정 상태, 정치의 부패, 새로운 질병, 가족관의 붕괴, 심지어 자연 그 자체 등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사악한 열매를 반영한다. 나의 전능은 세상 모든 어려움을 초월한다.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난국은 모든 세속적 문제들에 대한 나의 권능에 대해 너희의 존중이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수록, 나는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며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더욱더 너희에게 어려움들을 보내야만 한다. 나는 너희의 선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 내가 모든 선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애쓴다는 사실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2-4)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2022년 6월 21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금색과 흰색의 옷을 입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기운과 함께 너희에게 왔다. 이것은 도덕의 승리다. 이 일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이지만, 이 참혹한 법의 폐지는 너희 나라의 양심이 현실을 받아들여 한다는 대단히 좋은 신호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태내의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그렇게 인식되고 소중히 다뤄져야만 한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도덕의 승리는 너희 나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싸워 왔다. 이 (낙태)죄의 승인의 번복은 너희 나라의 미래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낙태의 제단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 하나하나의 하느님의 종합적인 계획에 있어 중요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대통령, 과학자는 물론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범이 되었을 위대한 지도자들을 잃었다. 하느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수많은 목주기도와 어려운 희생들의 의복으로 차려 입은 위대한 도덕의 승리를 함께 축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축하할 것이다.”

* 미국 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7대 2로 낙태에 관한 각 주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 했던 역사적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 2022년 6월 22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축하해야 한다. 이것은 이 나라의 양심이 이런 변화에 열려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위태롭다. 이 야만적인 잔혹 행위가 법으로 지지되었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상실되었다. 너희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끔찍한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용기를 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온 천국이 이 지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2022년 6월 22일. (오후).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되신 성심 축일’인 일요일에는* ‘하나된 예수 마리아 성심’이 나타나고, 그 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세 가지 축복’을** 내리시고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본부인 마리아 나타 샘과 성지의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에서 개최되는 오후 3시 에큐메니컬 기도 모임

**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23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6월 24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딸아 (모린),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데는 이 선교사업과 지난 수년 간 이 성지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특히 너희들이 이것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태아 목주 기도’는** 이때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나의 자취가 될 것이다. 이 승리에 안주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준 똑같은 추진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각 주가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일요일부터 과거에 주어졌던 ‘미국의 50개 주(州) 목주기도(Rosary of the States)’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목주기도는 이 성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바쳐질 것이다.”

* 미국 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7대 2로 낙태에 관한 각 주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 했던 역사적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6월 24일 금요일인 오늘 5대 4로 뒤집었습니다.

** 지극히 거룩한 목주기도 개정판 (한국어):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814>

영어 목주기도 목상집:

<https://www.holylove.org/rosary-meditations>

태아 목주기도와 짧은 목주기도 한영 소책자: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244>

태아 목주기도의 약속과 은총: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457>

태아 목주 구매 방법:

<http://holyllovekorean.com/xe/news/101727>

■ 2022년 6월 24일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 저녁 7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은 큰 기쁨과 승리의 날이다. 너희 나라가 도덕적으로 크게 전진했기 때문이다.”

“무기는 항상 그것이 만들어진 이래 마음속에 폭력적인 동기를 품은 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총기를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대중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무기를 낳게 될 뿐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성향이다. 매일 텔레비전에서는 보복이 묘사되고 있는데도 이와 대조되는 용기와 친절과 거룩한 사랑은 조명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거짓 신이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회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은 무기의 필요성과 불법적인 무기 사용을 줄일 것이다. 모든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서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폭력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악에 맞서 무죄한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의 폭력적인 공격 간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관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길 밖에 없다.”

“교단에서는 용서가 설교되어야 하며, 대중 매체는 폭력을 인가 있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반적으로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충기를 금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즘 시대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 수많은 정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단일 세계 지배 (One World Control)’를 조작하는 하나의 책략으로서 물자가 억류되고 그 몸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오직 지혜로운 이들만 기꺼이 이런 진리에 대한 배신의 함정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단일 세계 정부(One World Government)’란 주로 적그리스도인 ‘단일 세계 지도자(One World Leader)’의 발판이다. 단일 세계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자는 온갖 선을 가장하며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이자에게 있어 법과 질서란 곧 자신의 법과 질서를 뜻한다. 만일 일반 대중이 무기를 (빼앗겨) 무장 해제되면, 이자가 권력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

“누가 단일 세계 질서로 이득을 보게 될 지에 유의하여라.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는 작은 영혼들이 이득을 보겠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를 신뢰하여라.”

“내가 옹호하는 것은 내 거룩한 성심 안에 거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영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 2022년 6월 25일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바뀌시며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 티 없는 성심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내 성심은 혼란과 거짓 가치들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타협된 뉴스 매체가 너희의 의견에 영향을 주게 내버려두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수도, 또 진리 안에서 살 수도 없다. 대중 매체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에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대중 매체는 진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그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자녀들인 너희는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확고한 의로운 가치들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단일 세계 질서(One World Order)’를 옹호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거짓의 캠페인(운동)

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내 성심은 진리의 피난처다. 너희가 이 거처를 찾게 되면, 진리가 환희 드러날 것이다. 대중 매체는 너희의 벗이 아니라 진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신문이나 뉴스 매체 방송 또는 정기 간행물 등의 영향을 받지 마라. 내 티 없는 성심의 진리를 구하여라.”

“사탄이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 너희를 공격하면,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 성심의 보호를 구하여라. 겸손은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내 성심은 하나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이다.* 진리에 마음이 달혀 있는 이는 아무도 그 다음 심방들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내 티 없는 성심 안으로 초대한다.”

“나는 너희 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법부(대법원)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태내의 생명을 보호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 사실을 타협하려드는 자들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승자가 될 수 없다. 이제, 모든 지도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지지하고 하느님의 승리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너희 나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이 선(善)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라.”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너희의 일치 안에 너희의 힘이 있다. 내 티 없는 성심 곧, 자신의 자녀들과 태중의 아기를 최우선적으로 보살피는 어머니의 성심을 본받아라.”

“이 대법원 판결이 이룩한 선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 옛날 용인 사탄 그자의 극악한 소행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 나는 너희가 서로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지지한다.”

“누가 이 일에 반대하는지 슬기롭게 알아차려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태내의 생명에 관한 진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들에 대비해 부디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청원들을 오늘 내 티 없는 성심 안으로 가져간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lovekorean.com/xe/uh>).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는 ‘추천 도서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237>)

■ 2022년 6월 26일 / 하나되신 성심 축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반대도 신임하지 마라. 잠시 멈추어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반대할 자는 유일하게 사탄 한 명 밖에는 없으므로, 모든 반대는 그 자가 선동하는 것이다. 너희 나라의 ‘새로운’ 이미지 곧,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이며 진리와 일치하는 이미지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일치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없다. 너희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나의 안배를 경험하면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나의 안배와 나의 보호는 하나인 경우가 많다. 이제, 너희는 태내의 생명에 대한 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나다. 진리는 연구와 오류를 통해 나타났다. 또한 진리는 유산, 연구, 그리고 불행하게 보였지만 결국 선을 위해 사용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다가왔다.”

“이 세대는 연구와 토론과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 들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의 정치적 의견을 바꾸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드문드문 드러난 사실들의 총결산이 나의 진리와 나의 안배와 함께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나는 각자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여러가지 일의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주는 모든 것은 다 영혼을 진리로 이끌고 진리 안에서 인도하는 나의 안배다.”

“너희 나라는 현직 대통령* 아래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가 온 국민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기름 값에 영향을 준 알래스카 송유관 폐쇄를 들 수 있다. 그는 다른 이들이 계획해 놓은 비밀 의제를 따르고 있다. 이 의제는 ‘단일 세계 질서(One World Order)’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는 그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이 실수였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뒤에 있는 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미국의 각 주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너희에게 청한다. 이제 낙태죄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 주의 중대한 책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기도 용사로서 너희의 목주를** 들고 나를 도와 낙태죄를 극복해야 할 때다.”

“오늘 나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덕분에 기쁘며, 이제 나의 ‘세 가지 축복’으로 너희 하나하나를 축복한다.”

* 조 바이든 (Joe Biden)

** 지극히 거룩한 목주기도 개정판 (한국어):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814>

영어 목주기도 목상집:

<https://www.holylove.org/rosary-meditations>

태아 목주기도와 짧은 목주기도 한영 소책자: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244>

태아 목주기도의 약속과 은총: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457>

태아 목주 구매 방법:

<http://holyllovekorean.com/xe/news/101727>

■ 2022년 6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미국 대법원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미국의 각 주를 위해 기도하는 데 너희의 주의를 돌려라. 쉬지 마라. 우리는 큰 전투를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너희의 기도에 달려 있다.”

“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발현) 기도 모임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다. 너희가 말하거나 결정하는 것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 이 전쟁은 단지 너희의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내의 생명을 옹호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개개인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다른 이들이 생명을 옹호하도록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1:2-3)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 2022년 6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 옹호 운동 (pro-life movement)’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이제 태내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은 미국의 여러 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이 기도 운동 안에서 일치하여라. 연방 정부 차원의 이 승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생명에 반대하는 잘못된 주들에 집중하여라.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라. 많은 생명들이 여전히 위태롭다. 너희의 기도는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22년 6월 28일 현재, Guttmacher Institute의 미국의 각 주 낙태법 현황 지도 (<https://states.guttmacher.org/policies/>) 에

따르면 낙태를 여러 가지 단계로 보호하는 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수준: 일부 규제/보호, 일반, 높음, 가장 높음):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 D.C., 와이오밍

■ 2022년 6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힘든 점은 가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때에 개인적 거룩함이 시험대에 오른다. 처음부터 잘 협조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함께 일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날 때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려움은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

“나는 이 선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개인적 거룩함과 이 메시지들의 지침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영혼의 저항은 빨리 알아챌수록 좋다. 겸손은 단체의 화합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다. 이것이 선교회라는 '기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름(유활류)이 되어야만 한다. 겸손이 없다면 우회하는 것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인적 거룩함이 각 영혼을 인도하는 길은 종종 여러가지 장애물로 온통 뒤덮혀 있다. 이것들을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너희의 겸손의 깊이를 알려주는 시험으로 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13)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22년 6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화해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나의 자비의 활동이다. 화해하는 데에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화해할 수 없다. 또한 먼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못한다. 거룩한 사랑은 용서의 발판이며, 용서는 화해의 발판이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는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 마음속의 거룩한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모든 덕 또한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2-14)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낙태 종식을 위해
태아 목주기도를 바치십시오

440-327-4532 www.rosaryoftheunborn.com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저녁 7시

기도 모임에서 천상이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베풀 때마다 기도 모임 참가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혜택을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GIFT SHOP)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 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 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이자 신비주의자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10: 4-1/8" x 9-1/2")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TWO-OUNCE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목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lylovekorean.com (웹사이트)